

# 전쟁이 남긴 불씨, 인간을 태우다…차범석 '산불' 무대에



광주연극배우협회가 오는 19~20일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차범석 희곡 '산불'을 선보인다. 출연 배우들의 연습 장면.

〈광주연극배우협회 제공〉

차범석의 희곡 '산불'은 그렇게 전쟁의 불씨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 준 한국 현대극의 대표작이다. 민족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한 산골 마을로 압축한 이 작품은 전쟁이 남긴 상흔과 인간 육망의 민낯을 사실주의적 필치로 드러낸다.

갈등과 분열이 일상이 된 오늘, '산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질문을 던진다.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의 명작을 지역 배우들이 무대 위로 다시 불러낸다.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이솔·광주연극배우협회)가 연극 '산불'을 오는 19~20일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협회 창립 이후 소수 번째 정기공연으로 지역이 낳은 극작가 차범석의 대표작을 지역 배우들이 다



시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연극의 뿌리를 되짚고 고전을 현재의 언어로 익는 자리다.

작품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젊은 남성들이 모두 전장으로 떠난 산촌을 배경으로 한다. 마을에는 과부와 노인들만 남아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그 틈으로 전직 교사 출신의 탈출 광비 규복이 숨어든다.

## 광주연극배우협회 20회 정기공연…19~20일 광산문화예회관

###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 조명…지역 연극인들 순수 제작

규복과의 만남을 계기로 억눌려 있던 육망과 갈등을 터뜨린다. 사월이 규복의 아이를 임신하자 점례는 그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권한다.

그러나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비극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규복이 숨어 있던 대밭에도 불길이 번지고, 규복은 총탄에 쓰러지며 사월 역시 죽음을 맞는다.

작품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단순하게 재단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육망에 흔들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는지를 묘사한다.

규복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 시대에 휩쓸린 희생자에 가깝고, 점례와 사월 역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물들이다.

이번 공연은 전쟁 속에서 선택권을 빼앗긴 개인들, 특히 여성들의 삶과 감정이 어떻게 왜곡되고 소모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적 가치와 유교적 규범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육망

을 말할 언어조차 갖지 못했다. 이번 '산불'은 그 침묵의 지점을 파고든다.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털 말하고 더 보여주는' 연출이다. 대사에 기대기보다 무대 이미지와 배우의 신체, 공간의 변화가 서사를 이끈다. 인물의 감정은 설명되지 않고 움직임과 호흡, 침묵과 음향을 통해 나타낸다. 관객은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은 물론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품고 있던 긴장과 억압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연출을 맡은 김민호는 작품 속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했던 남겨진 자들"로 바라본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떠안은 채 공비와 국군 사이에 놓였던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과부라는 처지에 놓인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는 저마다 다른 결핍과 육망, 고독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솔 회장은 "이번 작품은 녹록지 않은 제작 여건 속에서도 광주 연극인들의 마음과 진심이 모여 완성된 무대"라며 "연출부와 배우, 스태프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작품을 옮겼다"고 했다.

이어 "전쟁 이후의 상처 속에서 인간의 육망과 죄책감, 공동체의 균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 작품이 관객에게 깊은 울림으로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네이버 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겨울 무대에 울려 퍼지는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 바리톤 박홍우·피아니스트 신수경, 오늘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 600여 곡의 가곡으로 독일 남만주의 음악의 지평을 넓힌 정작 생애 대부분을 가난과 병 속에서 보냈다. 배고픔과 고독을 음악으로 견뎌낸 거장은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슈베르트가 죽음을 1년여 앞둔 시기에 완성한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에는 그 쓸쓸한 삶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 해의 끝자락, 인간의 상실과 고독을 담아낸 여정이 두 음악가의 호흡 속에서 무대 위에 펼쳐진다.

바리톤 박홍우와 피아니스트 신수경이 16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 나그네(Winterreise)' 전곡 연주회를 연다.

'겨울 나그네'는 빌헬름 멜리의 시에 슈베르트



바리톤 박홍우



피아니스트 신수경

가곡을 불인 24곡의 연가곡집이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백조의 노래'와 함께 슈베르트의 3대 가곡집으로 꼽힌다.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을 떠도는 실연한 청년의 병황을 그리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절망과 존재론적 고독이 짙게 배어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1곡 '밤인사'에서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에 이르기까지 전곡이 연주된다. 얼어붙은 눈물, 보리수, 우편마차, 이정표 등 시 속 이미지들이 성악 선율과 피아노 반주를 통해 한 장면씩 펼쳐질 예정이다.

바리톤 박홍우는 독일 가곡 해석에 정평이 난 성악가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리트와 오라토리오를 전공했다.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를 비롯한 독립 음반 13종을 발표했으며, 현재 가곡 전문 연주단체 리더라이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의 문화, 방향을 묻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18일 송년포럼

한해를 마무리하는 즈음, 광주 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정책 실행력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도시 실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지원포럼)은 오는 18일(오후 4시) 빛고을대로 인근 '메리언가든'에서 송년 포럼을 펼친다. '광주의 문화,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며 문화

도시의 비전과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정현 지원포럼 사무국장이 '2027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현황과 추진 경과'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은옥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아트법 연장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법적 기반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 내용

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강신경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광주의 문화 비전'을 주제 전반적인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로운 시간에는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과 인사들이 문화도시 실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방법 등을 교환한다.

류재한 회장은 "한해의 마지막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화인들이 함께 모여 미래 광주의 문화 정책 등을 함께 사유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문화도시 방향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교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연다운 인간', '인간 닮은 자연'

강미미 '오늘,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 전…19일까지 주안미술관

자연을 좋아하는 것과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전자는 힐링의 느낌을 환기하지만, 후자는 땀의 의미를 사유하게 한다.

강미미 작가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삶 속에서 자연과 호흡한다. 작가에게 밭은 작물 생산의 공간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교차하는 치열한 생의 현장이다.

"농사를 지으며 작물을 대하는 삶 속에서 자연다움을 찾고, 자연다움에서 인간다움을 다시 꺼내 본다"라는 말에서 강 작가는 상정하는 자연의 모습이 그려진다.

강 작가의 '오늘,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 전이 주안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19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자연다운 인간', '인간 닮은 자연'을 아우르는 데 초점을 뒀다. 회화와 설치작품 등을 관통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



'새벽에 자라나는 순'

한 호기심이다.

'오늘,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라는 주제가 말해 주듯 '불'은 자연을 살리는 생명수다. '기쁘게도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다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물의 공급을 뜻하는 한편, 비가 내리는 순간의 감각적 사유, 감성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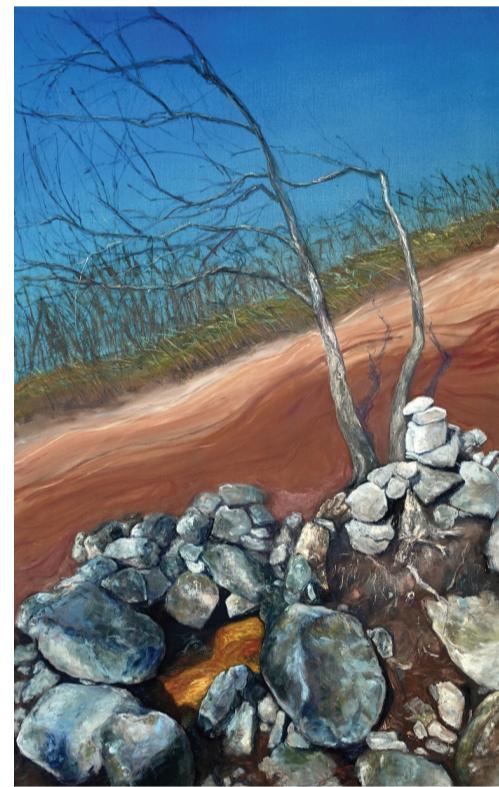
'새벽에 자라는 순'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이라야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새벽 이슬을 먹고 자라며 농부의 밭자국 소리에 키가 든다. 대지를 뿌려 올라오는 새싹이 지닌 힘, 새싹이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특유의 복질로 형상화했다.

'드러난 뿌리, 드러난 쌈'은 돌더미 속에서도 악착같이 뿌리를 내린 나무를 초점화했다. 메마른 황무지의 돌더미를 뿌려 생명을 피워내는 나무는 안타까움을 준다. 말라비를 어진 나무와 바다의 드러난 뿌리 쌈은 오늘의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엄중한 경고로 읽힌다.

송진주 학예사는 "강 작가의 전시는 단순한 작품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데 있다"며 "직접 밭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하기에 작가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단치 않다"고 전했다.

자세한 전시 일정 및 정보는 주안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드러난 뿌리, 드러난 쌈'



메타버스 3D 가상 패션쇼 작품.



〈광주대 제공〉

## 눈 앞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3D 가상 패션쇼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19일까지 양림동 씨움갤러리

메타버스 3D로 구현한 가상 패션쇼가 열린다. '광주'를 주제로 한 3D 가상 패션쇼가 갤러리에

서 펼쳐져 눈길을 끈다. '2025 광주대 메타버스 3D 가상 패션쇼'가 오는 19일까지 양림동 씨움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19점이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원단 2D 디자인과 CLO3D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

패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스트리트 패션을 하위문화 관점으로 재해석한 Creative artwear과 다른 하나는 많은 시민의

염원을 꽂에 투영해 표현한 K-Fashion이 그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RISE사업단 K-컬처리딩센터가 주관한다.

허승연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교수는 "이번 가상 패션쇼는 학생들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과 AI 발전과 맞물려 실무형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패션쇼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실재적인 행사보다 색다른 감성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